한국의 대학도서관 전기DB 구축 현황 및 발전방안

박홍식,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연구위원
honspark@keris.or.kr
이지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연구원
jwlee@keris.or.kr

목차
1. 들어가며
2. 한국 대학도서관 목록 전산화 개요
3. 한국 대학도서관 전기DB 구축 및 운영 현황
4.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전기DB 구축 및 서비스 현황
5. 대학도서관 전기DB 구축을 위한 과제
6. 결론

1. 들어가며

이 글은 한국 대학도서관에 있어 전기DB의 현황과 향후 발전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 한국 대학도서관의 전기DB는 아직까지는 시작단계라고 할 수 있으며, 제대로 된 전기DB를 구축·활용하기 위하여는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아 있다. 이 글에서는 우선 현재 전기DB 현황의 배경이 되는 한국 대학도서관 목록의 전산화 과정 및 문제점을 다루어보고, 한국 대학도서관과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전기DB 현황을 소개하였다. 그리고 한국 대학도서관 전기DB 구축을 위해 수행하여야 할 과제를 살펴보았다. 이 글이 한국 대학도서관 전기DB에 연관된 모든 문제를 다루지는 못하지만, 개략적인 모습을 보여 줄 수 있을 것이다.
2. 한국 대학도서관 목록 전산화 개요

한국 대학도서관의 전산화는 80년대 후반부터 시작되었으며, 대부분의 4년제 대학도서관은 현재 거의 전산화를 끝마친 상태이다. 도서관 전산화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목록의 전산화라 할 수 있다. 현재 대학도서관 소장 단행본 목록의 80~86%가 전산화되어 대학도서관 목록의 전산화는 상당부분 이루어진 상태이다 (교육부, 2000). 이 장에서는 한국 대학도서관 목록 전산화의 현황 및 문제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한국의 대학도서관 목록 전산화는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개별 대학도서관이 기존에 작성한 카드 목록을 MARC으로 소규 변화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졌다. 이 과정에서 많은 참조가 있었던 국내서 표준 목록이 존재하지 않았고, 대학도서관의 협력을 통하여 목록 전산화를 추진할 중심기관이 없었기 때문에, 대부분 각 도서관이 독자적으로 MARC 데이터를 작성하게 되었다. 이는 NACSIS가 제공하는 참조목록데이터를 자판 서지정보 소규 변화에 이용할 수 있었던 일본 대학도서관의 경우와 큰 차이가 있는 것이다. 한국 대학도서관이 개별적으로 목록 전산화를 추진하면서 도서관간, 목록작성자간 고유한 목록작성 관행이 나타났으며, 또한 대학도서관간 데이터의 교환 및 공동 이용을 크게 염두에 두지 않아 표준화 문제가 거시적인 차원에서 다루어지지 않았다(조제인, 한혜영, 2000).

KORMARC 형식에서는 기본표목을 어떠한 기준에서 어떻게 선정하고 그것 을 어떠한 형식으로 기술했던 상관없이 이미 선정된 기본표목을 컴퓨터에 입력하는 방식만을 규정하고 있으며, 기술규칙에서도 “기본표목은 목록규칙에 의해 부여된다”고 하였으나 구체적으로 어느 목록규칙인지는 명시하지 않고 있다(정옥경, 1996).

KCR3에 영문표가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 목록규칙이 KCR과 ‘KORMARC 기술규칙’에 각각 별도로 개정 및 제정되면서 한 국가내에 이원화된 규칙이 존재하는 점이 한국 편목규칙 표준화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목록규칙이 전거래터의 작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고, 목록 데이터는 전거DB 구축에 이용된다면 점에서 이러한 목록규칙과 목록의 표준화 문제는 한국이 국가 전거DB를 구축하는데 많은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3. 한국 대학도서관 전거DB 구축 및 운영 현황

대학교 전자카이터의 통합 가능 여부, 전자형의 선정 여부 등 주요한 결정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table>
<thead>
<tr>
<th></th>
<th>서울대</th>
<th>연세대</th>
<th>이화여대</th>
</tr>
</thead>
<tbody>
<tr>
<td>건수</td>
<td>약 186,000건</td>
<td>약 390,000건</td>
<td>약 140,000건</td>
</tr>
<tr>
<td>사용포맷</td>
<td>KORMARC(국내)</td>
<td>USMARC(국외)</td>
<td>KORMARC</td>
</tr>
<tr>
<td>전기통제 대상</td>
<td>개인명, 단체명, 회의명, 통일서명/ 전체표목</td>
<td>개인명, 단체명, 회의명, 주제명 (인명,단체,지명)/ 전체표목</td>
<td>개인명, 단체명, 총서명/ 참조 가지는 표목</td>
</tr>
<tr>
<td>전기형</td>
<td>한국인명</td>
<td>한국표기</td>
<td>한국표기</td>
</tr>
<tr>
<td></td>
<td>영문표기</td>
<td>한국표기(한글음)</td>
<td>한국표기(현지음)</td>
</tr>
<tr>
<td>서양인명</td>
<td>영문표기</td>
<td>영문표기</td>
<td>영문표기</td>
</tr>
</tbody>
</table>

4. 한국교육과학정보원 전기DB 구축 및 서비스 현황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LC 전기데이터를 구매하여 대학도서관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다. 현재 한국 대학도서관에서 구축한 전기데이터는 시범적으로만 운영하고 있다. 국가 차원에서 대학도서관이 이용할 수 있는 전기DB를 구축하고자 현재 준비 중이다. 우선 전체적인 현황 파악 및 계획 수립을 위해 “학술정보 전기DB시스템의 개발과 구축에 관한 연구”(한국교육학술정보원, 2000)을 외부 용역과제로 수행하였다. 이 과제를 통해 현재 운영 중인 전기DB 현황 및 특성, 전기DB 구축을 위한 방법 및 절차 등의 관련 기술적 조사를 해 보았다. 이를 바탕으로, 현재 전기DB를 운영 중인 대학과 주요 대학 실무책임자를 중심으로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5. 대학도서관 전기DB 구축을 위한 과제

전국의 대학도서관이 목록 구축 및 검색에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국가 전기DB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여러 단계의 작업이 필요하다. 그 중에서 주요한 것이라고 생각되는 사항들은 다음과 같다.

5.1. 대학별 전기DB 현황 및 특성조사

현재 한국의 주요 3개 대학도서관이 자체 전기DB를 유지하고 있다. 이들 대학도서관의 전기데이터가 70만건이 넘는다고 했을 때 이 데이터를 국가 전기DB 구축을 위한 기초 데이터로 이용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라고 생각된다. 이들 DB를 통합하여 하나의 DB로 구축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각 대학별 전기데이터의 수준, 전기형 등에 관한 현황 및 특성에 관한 조사가 있어야 한다. 이를 통하여 통합에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내야 한다. 물론 전기DB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구축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구축된 데이터의 특성을 정적으로 반영할 수 없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5.2. 체 규칙의 정비

전기DB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목록규칙이 정비되어야 할 것이다. 이
미 연급한 바와 마찬가지로, 한국의 목록규칙은 오래되었으나, 누락된 부분이 있다. 그리고 많은 부분, 규칙이 상세하지 않다는 의견을 목록 수무자가 제기하는 경우도 있다. 이에 대한 정비가 시급한 설정이다. 이러한 규칙이 제대로 정비되어야, 이에 맞춰 전거데이터 관리 규칙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5.3. 시험DB 구축 및 시스템 정비

기 구축된 전거데이터의 특성과 파악과 제 규칙이 정비된 후, 데이터를 시험적으로 통합하는 작업을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는 활용할 수 있는 전거시스템이 있으나, 개별 대학 데이터의 통합, 소급 데이터의 입력, 신규데이터의 생성 및 운영 등에 관해 실질적인 시험이 다시 한번 필요할 것이다. 이는 새로 정비되어야 할 목록규칙, 전거데이터 관리규칙 등 재 규칙의 수용과, 기존 데이터의 통합 시 필요한 기능의 수용 등이 시스템에 반영되어야 할 것이며, 특히 전거DB의 운영 형태를 시스템에 반영시켜야 할 것이다.

5.4. 전거DB 운영체제 구축

전거DB는 하나의 기관에서 운영하는 것보다는 대학도서관 협력의 형태로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이다. 이는 목록을 작성하는 기관이 대학도서관이기 때문에 전거데이터의 생성 및 관리에 대학도서관이 질적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 수행한 연구결과는 전거데이터의 운영 및 이용 형태를 그 역할과 권한에 따라 세가지로 구분하여 제안했는데, 이는 현재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종합목록의 운영체제와 유사한 형태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 2000, pp 118-120). 우선 5-10개관으로 구성된 “가”군의 도서관은 새로운 전거레코드의 입력과 타 회원 대학도서관이 입력한 전거레코드의 검증을 담당한다. 즉 “가”군의 도서관이 전거DB 운영의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다. 100개 내외의 “나”군 도서관은 새로운 전거레코드의 입력을 담당한다. 그러나 이 레코드는 “가”군 도서관의 인증을 받은 후 DB에 추가된다. 기타 도서관인 “다”군 도서관은 전거레코드의 다운로딩만 가능

---

The content is in Korean, discussing the issues with the current list rules and the need for reform. It mentions the necessity of testing the database and system configuration after the rules are revised, and the difficulty in integrating individual university data sets. The text also describes the proposed operating system for the database, distinguishing it into three categories: 5-10 leads while the remaining 100 contribute new records and download others.
5.5. 서지레코드와 전기레코드의 연계 방법 결정

서지레코드에 반복적으로 기록되는 데이터가 전기레코드에 의해 관리되고 전기레코드가 검색의 효율을 높이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서지레코드와 전기레코드는 식별번호 등의 방법으로 연결될 수 있다. 서지레코드와 전기레코드 연계에 있어 네 가지 방법을 연구결과는 제시하고 있다(한국교육학술정보원, 2000, pp. 77-78)

1) 서지파일과 전기파일을 독립적으로 유지하는 것으로서 서지파일을 작성할 때마다 전기파일을 참조
2) 서지파일과 전기파일을 별도로 구축하지만 서지파일의 표목 입력 시 전기명을 자동적으로 입력
3) 전기파일을 서지파일의 일부분으로 구축
4) 서지파일과 전기파일이 직접 접속되어 구축되는 형태로 서지파일의 표목부분에 전기파일의 제어번호만을 기록

서지레코드와 전기레코드의 연계 형태는 대학도서관 목록의 형태와 종합목록의 형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연계의 수준 또한 대학도서관 목록 및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종합목록 데이터의 향후 운영방안을 고려하여 결정될 수 밖에 없다. 이는 국가 목록의 형태 및 운영체제를 결정하는 것으로 대학도서관과 연관 기관들 간 공감대를 형성하여 장기적인 안목에게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6. 맥연말

도서관계에서 전통적으로 수행해 왔던 전기통계는 생산되는 정보의 양이 많아질수록 그 중요성이 더해진다고 볼 수 있다. 특히 국제적인 데이터의 교환 및 통합검색에도 그 중요성이 적지 않다. 한국의 대학도서관의 현실을 고려할 때, 전체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전기DB의 구축을 단시일 내에 이루기는 힘들어 보인다. 그러나 이는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추진해야 할 것
이대. 전기DB의 구축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를 간단하게 정리해 보자 면. 1) 현재 대학도서관에 구축되어 있는 목록의 형태, 2) 전기데이터 형태에 맞춘 대학도서관 목록 및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종합목록 데이터의 소급 정비 가능 여부, 3) 소급정비가 불가능할 경우, 한 기관이 두가지 형태의 목록을 유지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등 현실적으로 해결해야 할 많은 문제가 있다.
이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개별 기관을 중심으로 시행되었던 목록의 전산화 문제로부터 시작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를 최소화 하면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국가 학술정보의 유통을 촉진하는데 필요한 전기DB의 구축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며, 그 과정에서 국립중앙도서관과의 협력방안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한국교육학술정보원. (2000). 학술정보 전기DB시스템의 개발과 구축에 관한 연구.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위탁과제